



‘온누리에 평화를’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이하는 희망의 영천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영천시민회관 전정과 영천시청 소공원 일대에서 최기문 시장과 조영제 의장을 비롯해 지역 시도의원이 함께한 가운데 점등됐다. 시민을 위로하고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며 희망을 전달하는 축복의 빛이 되길 기원한다. 이번 트리 점등으로 그동안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야간 포토존으로 성탄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리축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영광! 영천의 평화!’다.

이만희 의원, ‘2021년 의정보고서’ 발간 ... 영천·청도 78,000세대 우편 발송

2022년,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만들 의지 표지에 담아 영천(55,000세대)-청도(23,000세대) “초심 잃지 않고 진심 다할 터”

이만희(영천-청도) 국회의원 ‘2021년 의정보고서’가 지난 3일 영천시와 청도군 각 세대 별로 일제히 발송됐다.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해 준 지역 주민에게 의정활동 보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 세대주 명단(주소 포함)을 제공받아 우편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된다. 영천시는 55,000세대, 청도군은 23,000세대다.

A4용지 8페이지(칼라)로 제작된 이번 이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새로운 내일을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흰 마스크를 낀 어린이와 활짝 웃는 모습을 표지에 담았다. 내년에는 각 가정이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기대된다. 2021년 의정보고서 주요 내용에는 그동안 지역민이 이 의원에게 보내준 성원에 대한 감사 인사와 2021년 상반기 교부세 확보(영천·청도 37억

6천만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연장, 영천과 청도 농업예산 확보 등 민생 지킴이 국비확보를 포함해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무를 맡아 재정 파수꾼 역할을 한 활동을 자세히 실었다. 또 올해 국회활동으로 받은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2021 국정감사 최우수상’,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4년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등 수상기록과 조선일보 및 연합뉴스 등 각종 언론에 비친 이 의원의 활동 모습, 영천과 청도를 오가며 주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한 주민 밀착

행보 사진 등이 수록됐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국회 농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국정감사 및 정부 내년 예산을 꼼꼼히 분석해 결정하는 등 공정하고 원칙을 지킨 사각지대없는 사회안정망 구축 활동을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보고서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 같은 마음으로 영천·청도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올 한 해 시·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영천신문 캠페인

힘내세요!! 소상공인

우리동네 사장님을 응원해 주세요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라, 지역경제!”

플라스틱 사용을 줄입니다

- ▷ 텀블러와 개인컵 활용 생활화하기
- ▷ 음식 포장은 다회용기에 담기
- ▷ 음료 구입시 무라벨 제품 우선구매
- ▷ 포장지가 없는 상품 구매하기
- ▷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 ▷ 플라스틱 수저 사용 줄이기

우리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만희 의원, 내년도 신규·주요 사업 국비 확보

영천 - '지식산업혁신센터', '대창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신규 사업 청도 - '반시비상품산업화 사업', '마령재 터널', SOC 예산 증액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604조원 정부 예산안 "국민도, 정책도, 희망도 없는 3無 예산안"이라며 미래세대에 빛 떠넘기는 멧뒤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예고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자격으로 영천·청도의 주요 현안 사업과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과를 거둬 사상 최초로 경북지역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대창·금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 20억원(총사업비 290억원),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건립 사업 10억원(총사업비 272억원), ▲영천 고경지구 치수능력확대사업 기본조사 2억원(총사업비 152억원), ▲영천 고경파출소 재건축 3,500만원(총사업비 5.41억원),

▲청도 반시 비상품산업화사업 5억원(총사업비 50억원) ▲청도 마령재 터널 건설 사업 4억원(총사업비 490억원) 등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및 증액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영천시 주요 사업 예산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는 지난해 영천시가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이만희 의원은 올해 국회 예결위 간사로서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결과물은 만들어냈다.

'대창·금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 사업' 예산 확보는 산업단지 준공 시기에 맞춰 입주기업의 교통편의 제공이 시급했던 만큼 이번 예산 확보로 물꼬를 트게 되었다.

영천 고경지구(파계리)는 농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홍수 및 침수 등

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치수능력확대사업'으로 선정됐고, '고경 파출소 재건축 사업'은 현 청사 노후화 및 공간이 협소 등으로 예산 확보 시급성을 고려해 적극 확보했다.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은 「도담~영천」 중앙선 구간 중 유일하게 단선으로 설계되었던 「안동~영천」 구간을 복선전철화로 변경·확정된 가운데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예산 111억원(22 예산 2,904억원)을 증액시킨 것이다.

◆청도군 주요 사업 예산

청도지역의 '반시 비상품산업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반시 수급조절 및 저품질 농산물 시장 유통 제한, 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청도 현안 주민 숙원 사업 '마령재 터널 건설' 예산 증액은 내년 착



공 목표를 이루게 됐다.

▲「운문~도계간」 국지도 개량 5억원(총사업비 438억원)을 비롯해 ▲재해위험지구정비(청도 운문지구) 10억원(총사업비 482억원) ▲청도군 관내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3개 지구(금천, 동산, 신원) 40.2억원(총사업비 257억원) 등 증액 반영으로 청도 발전을 견인하게 된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경북지역 대학을

살리고 지역의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 혁신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산 400억원 증액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경북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만희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하면서도, 영천·청도 발전을 이끌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하게 움직였다.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영천스타밸리의 경쟁력 제고를 넘어서 경북 첨단산업의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다"며 "영천과 청도 그리고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에 전력을 쏟았으며 함께 힘을 보태주시는 경북도 및 영천·청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장지수 기자

1천억원 절약한 이만희·김희국·이철우, 중앙선 단선에서 복선화로 바뀌

기재부 사업평가위 심의 통과 사업비 1천541억원도 증액 (안동~영천)71.3km 구간 2023년 개통 청신호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사업 중 유일하게 단선으로 추진되었던 안동~영천 구간이 복선 전철로 변경된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회에서 이사업 변경(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단선 전철로 설계됐던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변경)이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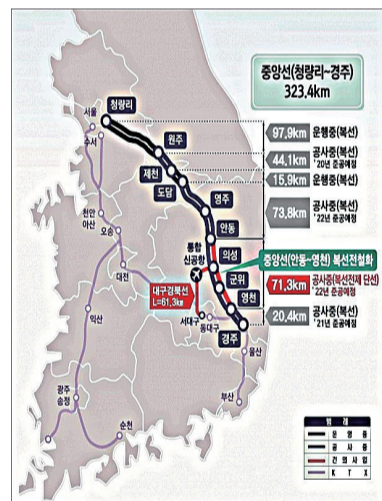
기재부는 그동안 이 사업 단선 구간을 기준으로 변경 없이 지속 추진해 오고 있었다.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 중 유일하게 단선 전철로 공사 중이었던 안동~영천 구간에 대해 건설착수 이후에 나타난 사업여건 변화와 열차 안전, 운영 효율화 등을 반영해 2023년말 개통에 발맞춰 일괄 복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잇따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과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맡아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및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은 물론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가며 안동~영천 구간 복선화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따라서 사업비는 당초 4조 443억원에서 1,541억원 증액된 4조1,984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23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복선화 사업 결정에 이철우



이만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 이철우 도지사

경북도지사의 역할도 적지 않다. 지난달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유일하게 단선으로 설계됐던 (영천~안동)71.3km구간은 통합신공항 개항 시 경북 남부권 신공항 접근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복선화)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 국도를 중단하는 주요 철도 축이다.

때문에 경북도는 만약 영천~안동 구간이 단선으로 설치될 경우 향후 이용량 증가로 열차 교행의 어려움 및 병목현상은 물론 단선 완공 후 다시 복선화 때 1천605억원의 공사비가 더 낭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년째 정부를 상대로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를 건의해 왔다.

특히 道는 지난 10월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안동을 찾았을 때도 "당초 단선 계획때 보다 교통 필요 요건이 크게 달라져 연내 복선계획으로 변경할 시 1천억원 이상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이 구간 복선화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낙후된 중부 내륙지역 4대 간선 철도 중 하나로 중앙선 철도의 수송 분담율 확대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돼 왔지만 이같은 문제점으로 영천~안동 구간의 복선화 지체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 이만희 의원은 "안동~영천 구간도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공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정부 부처 및 경상북도 등과 협력해 마지막까지 꼼꼼하고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최원일 前천안함 함장·전준영 전우회장, 백선기 칠곡군수에 감사패

칠곡군, 대한민국 지킨 영웅 행사 "천안함 장병 명예 드높여"

최원일 前천안함 함장과 전준영 前천안함 전우회장이 지난달 25일 호국 보훈의 도시 경북 칠곡군을 찾아 주민들의 환대 속에 백선기 군수에게 천안함 장병의 명예를 드높인대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백 군수는 정부가 외면해 온 천안함 폭침 장병을 따뜻하게 감사 안았다. 백 군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장병 46위와 구

조과정에서 순직한 故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9년 '천안함 챌린지'를 시작해 전국으로 추모분위기를 확산시킨 주역이다. 또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 행사를 개최해 천안함 장병의 명예를 드높였다.

최 前함장은 이날 오전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칠곡군은 국가를 대신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어려움을 겪었던 천안함 장병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줬다"면서 "보훈 없는 호국은 없으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명예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백 군수의 따뜻한 손을



최원일 前천안함 함장(오른쪽)과 전준영 전우회장(왼쪽)이 백선기 칠곡군수(가운데)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맞잡았다. 이날 주민들도 천안함 장병들을 환영하고 추모에 동참했다. 망정1리 주민들은 천안함 용사를 위해 김장 김치 50포기를 전달했고, 동

부초등학교 6학년 임영채 학생은 희생 장병을 추모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특히 칠곡 할매급꼴을 만든 어르신들은 칠곡을 방문한 장병들을 위

로하고 자신들을 대신해 목숨을 잃은 용사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죽자에 담아 전달하기도 했다.

최 전 함장은 전달식 인사말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현 정부에서 우연함을 드러냈다. 그는 "각종 유언 비어와 거짓으로 소위 음모론을 퍼트리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면서 천안함 침몰 원인이 '잠수함 충돌'이라고 주장한 유튜브 영상 등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말 기각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 전 함장은 방통위 결정에 반발해 지난 9일 대구급(2800t)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 진수식에 불참했다.

영천시, 불법행위 행정집행...이랬다 저랬다 고무줄 처분

고경면 K식품, 영천시 소유 농지 불법매립 공장 주차장 만들어 농지민원 행정절차법 사전 통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안했다... 불법 알고도 느슨한 안내



이를 두고 고경면 한 이장은 "해당 식품회사가 이 외에도 불법행위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마 영천시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싸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반면 건설과 농지담당 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대한 부실 여부는 해당 담당자가 와야 알 수 있다"며 답변을 유보했고, 민원실 농지 담당 역시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 논란과 관련해 "앞선 담당자를 찾아 내용을 파악한 후 뒷선과 논의해 답변을 드리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이번 고경면 해당 공유재산 농지(논) 불법매립은 인근 공장에서 지난 2020년 봄부터 수천톤의 암반·토사를 반입해 폐콘크로 마감해 영천시의 허가없이 현재까지 영천시 소유 부지를 개인 공장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영천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 공유재산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재산실태조사를 외면해 방치하는가 하면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느슨한 행정으로 일관하는 등 단속 행정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영천시는 고경면 삼포리 796번지 2,132㎡를 2004년 공공용지 협의취득했다. 목적은 구거부지 확보다. 재산관리 부서는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그러나 구거부지와는 별개로 관리 방치다. 2015년 1월 인근 공장(만투)에 한 차례 대부한 후 공장이 부도 나자 2019년 10월 이후로 지금까지 방치하다 공유재산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받고서야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더군다나 공유재산법에 매년 실태조사로 재산의 관리 및 변동 내역을 기록·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영천시는 이마저도 외면해 그사이 불법에 이용되고 있다.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이같은 영천시의 재산관리 방치를 틈타 지난 2020년 봄부터 인근 K식품공장이 영천시 소유 농지(논)를 불법 매립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지난 11월 23일 영천시에

민원이 제기됐다.<사진> 공유재산 무단사용 행위여서 일반 사유지 불법행위와는 엄격히 구별된다.

하지만 영천시는 이같은 공유재산 불법전용행위를 확인하고도 오는 12월 16일까지 행정절차법을 인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등 봐주기식 통지문만 발송해 타 민원과의 형평성까지 잃고 있다. 사유재산이 아닌 공유재산 불법 무단점용 현행법 위반행위가 행정절차법 안내 대상인지도 의문이다.

앞서 영천시는 화북면 정각리 604-1번지 내 사유지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는 6월 25일 출장 확인 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보도 없이 6월 25일 당일 곧바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바 있다. 또 원상복구 예정일(8월 30일)이 끝나는 다음 날(9월 1일) 즉각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는 속전속결 행정을 보여 왔다. 이번 공유재산 무단점용과 비교되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청소년 학교방문 백신 접종 강제에 거센 반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접종 선택권, 예방 근거되는 비타민 C·D 보급 촉구 "코로나19 백신 접종받은 고3 학생 2명 사망했다" "백신 맞을 계획이면 오늘 모습 기억하라... 어쩌면 한순간 추억 된다"



블론을 띄웠고, 급기야 12월 1일 오후 13일부터 백신접종 접종 지원주간을 운영해 '학교 단위' 방문접종을 진행한다고 발표하는데 따른 반발이다.

비가 오는 이날 약 2시간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전학연'은 5개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고3 학생 2명 사망했다"면서 정부 소아·청소년에 대한 강제적 백신접종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질병청 자료를 보더라도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단 1명도 없는데 반해 오히려 백신 접종 사망자가 2명이다" 또 "정부가 학교 내 백신(방역) 패스 분위기로 몰고, 학생에게 백신 접종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개인 건강 상 백신 접종 기회를 가질 수 없는 학생들에게 크나큰 상실감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백신 패스 시행 중단, 백신 부작용 공개, 접종 선택권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각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백신 접종 압박은 과학적이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수용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날 이들은 "백신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고 美 FDA가 지난해 10월 코로나19 백신의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발표했는데도 오히려 안전하다며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삼아 백신 접종을 강제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다음 5개항의 요구사

항을 강력 촉구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김수진 전학연 대표는 "사랑하는 자녀가 백신을 맞을 계획이라면 오늘의 그 모습을 기억하라 어쩌면 백신을 맞은 후, 언젠가 그 자녀는 누군가의 자녀와 같이 한순간의 추억이 될 것이다"며 정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숙연히 남겼다.

▶우리의 요구 사항

1. 코로나19로 죽은 유·초·중·고생 1명도 없는데 백신으로 사망한 고3 학생 2명이고, 현재 백신 사망자 1300명이 넘는다. 청소년 방역패스 실시를 중단하라!
2. 백신 부작용을 사실대로 투명하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접종 여부를 선택하게 하라!
3. 학생들에게 위험성이 있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 전에 코로나 감염과 사망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부작용이 거의 없는 비타민 C와 D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보급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정책을 할 것을 요구한다!
4.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들과 중증환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심가풀처럼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라!
5. 백신 접종이 장기적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는 질병청장이나 업무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총리, 대통령은 향후 백신 위험이 사실로 공인이 된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라!

[2021.11.30.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3개 단체]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영천출장소 개소

상공회의소 3층 상주 직원 1명... 市 발주한 위탁사업 관리



경북도 출연·출자기관인 (재)경북경제진흥원 영천출장소가 지난 달 22일 영천상공회의소 3층에 문을 열었다. 출장소로는 경북도내에서 처음이다.

경북경제진흥원(원장 전창록)은 이날 영천출장소 개소식을 갖고 가까운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7년 1월 (재)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설립한 경북경제진흥원은 2010년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한 후 구미에 본소를 두고 포항에 동부지소, 안동에 북부지소를 설치

해 올해로 24년을 맞는다. 이번엔 문을 연 영천출장소는 직원 1명이 파견되는 포항 동부지소 출장소다. 진흥원은 경북지역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창업지원, 운전자금, 벤처기업 육성, 재해기업 지원 등 정책지원사업을 비롯해 시장판로에 대한 마케팅지원, 일자리지원,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으로 다양하게 기업지원 디딤돌 역할을 한다.

구체적 지원사업 내용과 도움을 받고싶은 기업은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경북교육청, 학부모 불편 민원개선 적극 발굴

민원서비스 개선 발굴단 4분기 협의회...12건 과제 해결

경북교육청이 학부모 민원 불편 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민원 서비스 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달 26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학부모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발굴단' (이하 발굴단) 4분기 협의회를 열고 민원 해결 개선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학부모와 경북도민 26명으로 발굴단을 구성해 민원인이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제도나 절차 개선사항, 구비서류 감축, 서식 및 시스템 개선 등 교육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교육수요자가 직접 찾아



건의·개선해 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3분기까지 발굴단이 제안한 26건의 개선과제에 대해 12건에 대해 자체 수용·개선하거나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개선과제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체 교육기관 및 학교 전화(팩스) 번호가 NEIS(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바로 표시되도록 제안해 민원발급 시간을 단축시켜 교육수요자 중심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민원 서비스 환경을 개선해오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 “경북 민생경제 회복 불씨 꺼트리지 마라” 당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코로나19 재확산 심상찮다"면서 이런 가운데 민생경제 위축이 없도록 대응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지사는 7일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하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세에 자칫 지난해와 같은 민생경제 위축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또 민생살리기 특별본부의 부분장인 경제부지사 주관하에 일자리경제실, 복지건강국 중심으로 대응반을

재구성하고 민생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특히,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위기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면서 올 한해 집중했던 '민생살리기'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연말연시 민생현안' 주제 간부회의에서 5대 분야 13개

신규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이 지사는 향후 경제부지사 중심으로 민생살리기 대책수립 속도를 지시하고 도지사가 직접 민생현안을 챙길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 2월 '민생살리기 특별본부'를 구성해 장·단기 종합대책으로 총 53개 사업에 걸쳐 1조 761억원을 긴급 투입함과 동시에 '새바람행복버스'로 23개 시군 전부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시 지난해와 같은 민생경제 위기를 반복하지 않고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스스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라면서,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내년도도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필요한 정책들을 빠짐없이 챙겨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교육지원청, 초·중 릴레이 마라톤 3년 연속 종합 우승

육상부 초등 5위(40분 22초), 중학교 1위(44분 54초), 종합 1위(1시간 25분 17초)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양재영)은 11월 22일~26일 영천시민운동장에서 5일간 개최된 2021 교육감배 초·중학교 시군대학 릴레이 마라톤대회에서 3년 연속 종합

우승을 달성하는 3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영천교육지원청 초·중 육상부는 초등학교 5위(40분 22초), 중학교 1위(44분 54초), 종합 기록 1위(1시간 25분 17초)로 3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개인별로는 초등부 구간 1위에 김

은정(청통초6), 중등부 구간 1위에 안희연(성남여중3), 김한별(영동중3), 송다원(성남여중1), 김은선(성남여중2), 박정민(영동중2) 선수가 차지하였다.

양재영 교육장은 "대회 3연패의 훌륭한 성과를 달성한 육상부 학생들에게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하였다.



영천소방서, 화재발생 피해 줄이기 주택용 소화기·감지기 설치



영천소방서와 가스검침원이 협업체 지난 3일 영천시 야사동 문화아파트에 화재 대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이번 소방시설은 노후 아파트 및 재난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했다.

영천소방서(서장 김재훈)는 2021년 12월 3일 영천시 야사동 소재 문화아파트에서 가스검침원 협업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행사를 실시

했다.

또 화재 시 대피요령, 119신고방법, 가스화재예방 안전수칙 등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추후 추진기간 동안 가스검침원 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점검을 해 줄 계획이다.

김재훈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했다.

영천교육지원청, '메타버스로 여는 미래교육' 연수 단행

초등 대상 찾아가는 강의 지속

영천교육청이 교사들의 불편을 덜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무료 연수를 단행한다.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양재영)은 지난달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내 초등학교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참여형 교육활동과 학교, 학급행사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강의, 메타버스로 여는 미래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서 학생과 교사가 소통하며 진로교육, 상담활동 등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실습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다.

이 연수는 코로나19로 집합연수를

꺼려하는 교사들의 불편사항을 덜고, 학교업무로 바쁜 교사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또 강사 섭외와 강의료를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신청학교는 무료로 교육을 받는다.

영천 관내에서 세 번째로 북안초등학교에서 교사 1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연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연수가 활성화되는 교육현장에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비대면의 다양한 학교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경북, 화목보일러 화재 전국 3번째로 많아

5년간 149건, 대부분 부주의

나무를 주 연료로 하는 화목보일러 화재는 경북이 충남,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도내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건수는 194건, 인명피해 14명(부상 14), 재산피해 25억여 원에 달한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도심지역보다 주로 농촌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화재 발생 건수는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했으나 2019년 29건으로 다소 감소했고 2020년 41건, 2021년 11월 현재 29건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주택이 79.9%(155건)로 가장 많고 산업시설 5.7%(11건), 기타 건축물 3.6%(7건) 순으로 특히 단독주택에서 14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으로는 부주의 70.1%(136건), 기계적 요인 24.7%(48건), 기타 5.2%(10건)로 나타났다.

특히, 화목보일러 주변에 가연물을 가까이 두거나(127건) 불씨 방치(78건)가 주요 원인이었다.

경북도, 보육사업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보육인프라 확충·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개선 인정 받아

경상북도는 8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1년 보육유공자 정부포상식'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보육정책 수립 및 집행기여도 ▷지자체 특수시책 개발 등 정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어린이집 질 및 안전관리 기여도 ▷

보육관련 제도개선 수범사례 정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경북도는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을 도정목표로 보육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보육 아동 인성교육,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SMART교사 양성 등 29개의 특수시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영애의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청도군, 골목길 이면도로 구석구석 청소

친환경 소형 1.7t 전기노면청소차 2대 도입

청도군이 이면도로나 골목길 청소를 위해 친환경 전기노면청소차 2대를 구입했다.

청도군(이승율 군수)은 지난 2일 앞서 진공흡입 노면청소차(대형) 1대를 구입한 것에 이어 친환경 전기노면청소차(소형) 2대를 추가 구입해 상가가 밀집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청도·화양읍 지역에 우선 1대씩 투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형청소차는 주로 시내 큰도로 청소를 담당해 이면 도로나 골목길은 진입이 어려워 구석구석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는 국



산산 1.7t 으로 도심·상가·주거지역 이면도로나 대형 노면청소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의 미세먼지와 분진 청소에 유리하다.

하루 3시간 총전해 최대 6시간 동안 작업이 가능한 소형전기차량은 앞에 물을 분사해 흙먼지를 발생을 억제하고, 부착된 브러시로 쓰레기와 흙먼지를 모아 흡입한다.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만듭니다



농가주부모임 영천시연합회 50만원 기탁



중앙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0만원 기탁



(주)제이스디자인 500만원 기탁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 청년회, 떡국 떡 나눔



영천시 임고면 이재갑, 무 1.5톤 마을-단체에 기탁



영천농협 여성대학 총동창회 200만원 기탁



고도리 와이너리 대표 최봉학 100만원 기탁



영천농업협동조합 1천만원 기탁



영천축산업협동조합 1천만원 기탁



중앙동 새마을부녀회 100만원 기탁



중앙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난방유와 라면 기부



중앙동 통장 김기오 백미(20kg) 20포 기탁



신중협 경상북도 농업명장 장학금 1천만원 기탁



고경농업협동조합 이진홍 조합장 500만원 기탁



편광호 영동고 육상부 후원회장, 200만원 기탁



영천시 공공형어린이집, 장학금 300만원 기탁



(주)태산, 장학금 1천만원 기탁



완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장학금 200만원 기탁



금강산성 용천사와 효사랑사회, 성금 기탁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영천지회, 100만원 기탁



임고면 새마을부녀회, 100만원, 회장 김경례 50만원, 새마을부녀회 일동 50만원 성금 기탁



화산면 새마을협의회, 라면 24박스 기탁

영천 명성교회, 동부동에 성금, 쌀 전달

영천시 동부동(동장 조한웅)은 7일 영천 명성교회(담임목사 김희승)에서 성금 50만원과 쌀 100포(325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성금과 쌀은 지역 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복지 위기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1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삼밭골목장산업, 농촌융복합 우수경진대회 장려상

영천홀스파크를 운영하는 삼밭골목장산업(대표 정여진)이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개최된 올해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벤치마킹 기회 제공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올해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10곳이 선정됐다.

올해 경진대회는 시·도의 자체심사를 통과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엄격한 서면평가, 현장·발표평가를 거쳐 10곳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장려상은 삼밭골목장산업이 축산업을 기본으로 승마와 관련된 마구를 생산해 레저와 관광 등이 어우러진 서비스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이갑균·박종운·김선태
전종천·최순례 의원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갑균)는 지난 2일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역 현안 및 민원 사항 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 방문처는 북안면 용계리 토석채취 사업장과 도남동 소재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업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등이다.

이날 의원들은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사업현장을 차례로 방

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 파악에 나섰다.

북안면 용계리 소재 토석채취 사업장은 불법 산림훼손,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 비산먼지등 방지 시설 설치, 훼손 구역 원상복구 등 관계법령의 준수 및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살폈다.

토석채취 사업의 특성상 인근 주민이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에 노출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므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승인받은 복구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복구가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히 지도·감독

해 줄 것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도남동 소재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업체는 소각처리 과정과 운영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소각과정에서 악취 및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고, 녹전동 및 화산면 대기리 일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사업 현장은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오폐수처리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번 사업장방문에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을 포함해 박종운, 김선태, 전종천, 최순례 의원이 함께했다.



중앙동 LH 센터럴타운, 경로당 개소

영천 중앙초등학교 동쪽 영천문의 센터럴타운(LH) 경로당이 26일 오후 2시 준공 2년여만에 관리사무소 옆 105동에 드디어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노인회(회장 손원식)에 따르면 현재 회원 25명으로 개소됐다. 신설 공동주택 경로당은 등록이 의무다. 등록하지 않으면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센터럴 경로당은 지난 9월1일자로 34평을 신고하고 법정 등록을 마쳤다.

손원식 경로당 노인회장은 인사들을 통해 “경로당 개소식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며, “경로당이 주민 화합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성낙균 노인회장, 박영환 도의원과 이만희 국회의원실 김수용 사무국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영기·조창호·전종천 시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한방·마늘산업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 한방·마늘 산업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의원연구단체 (대표 이갑균)는 6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갑균 연구모임 대표를 비롯해 김선태, 박종운, 조영제 의원 및 집행부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수행기관의 보고를 들었다. 그동안 연구·조사한 영천시 한방·마늘 산업 현황과 특구 사업동향과 타 지자체 사례, 영천시 마늘 생산·

유통·가공 산업 각 분야 자료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마늘 특구가 먼저 지정된 창녕, 의성 지자체의 사례 및 특구 추진 사업 등을 비교 검토해 영천 한방·마늘특구 발전방향을 찾아내는데 머리를 맞췄다.

의원들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마늘 가공산업 활성화 및 영천 실정에 맞는 마늘재배 기계화 방안 등을 논의해 보완사항을 반영한 후 연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이갑균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천시 마늘 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로 영천을 마늘대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이테크파크지구 내 아파트형 공장 건립

스타벨리 지식산업혁신센터
2025년 준공, 국비 160억원

영천시 하이테크파크 내 아파트형 공장 '스타벨리 지식산업혁신센터'가 건립된다.

영천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신규 건립을 위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국비 16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지난 3일 이같이 밝혔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비수도권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 공공임대형 방식으로 운영하며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 공장 설립 인·허가 등



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천시는 내년에 설계비 10억원을 우선 지원받아 25년까지 4년간 국비 160억원을 포함하여 총 272억원 사업비가 투입돼 경제자유구역인 녹전

동 하이테크파크지구(영천스타벨리)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기존 자동차 부품 및 기계금속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신산업 구조로 재편이 절실한 시점에 지식산업센터는 하이테크파크지구 내 기술개발 기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과 첨단혁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2024년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 완료로 앵커기업이 유치되고 25년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면 기업 투자환경이 개선돼 지역전략산업을 유치 및 육성할 수 있게 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천시자원봉사자 수고하셨습니다” 격려

영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유석권)가 지난 7일 청소년수련관에서 2021년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한 해 동안 고생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 봉사활동을 펼쳐온 34명에게 표창상(개인 32, 단체 2)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이사모(이웃을 사랑하는 사

람들의 모임) 단장 허성혁(58세)씨는, 건축업에 종사하며 평소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방법을 모색하다 지인의 소개로 2015년부터 월 1회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개선활동을 꾸준히 펼쳐 귀감이 됐다.

이날 대회 행사인사에서 유석권 이사장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힘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주시는 봉사자분들에게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말했다.



영천시, AI 차단 선제적 방역 강화

영천IC 인근 거점 소독
시설 1개소 설치 24시간 운영

영천시가 이달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영천시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과 전남 오리농가·육계농가 등 지난 11월 들어 전국으로 확산 추세에 있어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는 선제적 강화방역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영천IC 인근에 거점 소독시설 1개소를 설치해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한다.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소독 후 출입토록 하고, 소규모 가금농가 159호의 축사 주변은 집중 소독해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철새가 주로 출몰하는 금호강, 자호천 등 주요 하천과 소하천 주변 산란 가금 농가 9개소를 대상으로 살수차를 동원, 지난 4일부터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5천여만원을 투입해 생석회와 소독약품 등을 가금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업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공무원 27명을 전담 편성·운영해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농장 부출입구 통제, 축사 소독실시, 축사 그물망 설치 등 축사 방역에 대하여 꼼꼼히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더 낮은 자세로 이뤄낸 2021영천교육, 교육에서 희망을 찾다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 희망이 절실하였기에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희망을 찾고자 애써온 2021년, 힘들고 지난한 시간이었지만, 나름의 결실을 거두며 바쁘게 보냈던 한 해였기에 교육에서 희망을 찾았던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양재영)의 일 년을 돌아보았다.

희망 하나, 더해주고(+) 덜어주는(-) 학교지원센터, 희망의 첫 발을 딛다!



교사의 업무를 더 능동적으로 지원하여 업무 부담을 보다 많이 덜어줌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더해주고 덜어주는 학교지원센터'를 슬로건으로 하여 올해 첫 삼을 뜬 학교지원센터는, 홍보리플릿 및 카드뉴스 제작 등 다채널을 통한 홍보, 4개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약 체결, 학기별 업무 지원을 위한 의견 수렴 등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알리고 다양한 업무 발굴 및 지원에 노력한 결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상반기 만족도조사에서 우수 학교지원센터로 선정되었다.

주요 지원 업무로는, 계약제교원 등 인력 채용 지원 48명, 현장체험학습 코스 개발과 맞춤형 코스 제안, 현장체험처 공유, 학생 대상 교육강사 섭외 지원과 필수연수 강사 인력풀 공유 등의 교육활동 지원, 지역 대학 연계 학교도서관 정리, 과학실험실 관리 지원,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지원,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 등의 현장활동 지원, 그 외 지역 특색에 맞는 업무 지원의 4개 영역에서 교사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현장을 누비고 있다.

희망 둘, 화통, 수업공감·회복적 생활교육 콘서트, 지원장학에서 희망 찾기

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직면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함께 찾음으로써 학교 현장에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는 지원장학을 통한 희망 찾기도 돋보였다.

영천교육지원청이 신규·저경력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수업력 향상에 대한 고민,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해결해가도

록 지원해주는 「火通, 수업공감·회복적 생활교육 콘서트」는 올해 4년차로 접어들어 이제 완전히 정착된 대표적인 지원장학 프로그램이다.

‘火通’이란, 화요일에는 수업과 공감으로 통한다는 의미이다. 프로그램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火通 콘서트’는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교사 4~5명으로 팀을 구성한 후 매월 넷째주 화요일에 만나 수요자인 멘티의 배움 욕구를 적극 수용한 주제로 연간 8회의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비대면의 방식을 병행하였고 단순히 멘토인 수석교사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멘티의 수업을 공개하거나 지상수업 운영, 수업 계획에 대한 토의 등 수업 방법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논의되었다.

또한, 교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 번외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학생과 더 잘 소통하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마무리 콘서트는 멘토의 소감 발표와 멘티의 성장기 나누기, 2022학년도 운영 시 개선할 점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화통 콘서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천중앙초 이** 교사는 ‘동료들과 고민을 나누다보니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음에 많은 위로가 되었고, 선배 수석교사의 수업 노하우와 폭넓은 경험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교사로서 자신감이 길러졌다’는 소감을 밝혔다.

영천교육지원청은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2022년에도 더 많은 교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火通, 수업공감·회복적 생활교육 콘서트」를 운영할 방침이다.

희망 셋, 호국문화와 함께하는 골별인의 희망 프로젝트

향토 위인 3선현(정몽주, 최무선, 박인로)의 생애 업적 알기 프로젝트를 통해 호국의 얼을 찾고,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내고장 체험 탐방 및 사제동행 지역 탐방, 영천 바로알기 체험 행사 참여, 전입교사 지역 문화 투어 등을 통해 고장에 대한 이해와 향토사랑을 높였다. 특히 올해는 학교의 부담을 덜면서 체험 효과는 더 높이기 위하여 초·중학생의 「호국충절 내고장 탐방」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추진하여 학교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11월 2주부터 4주까지 3회에 걸쳐 토요일마다 한의마을, 화랑설화마을, 보현산땀공원 등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호국정신이 깃든 장소를 답사하며 지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아울러 향토애를 키울 수 있었다.

희망 넷, 적극 행정으로 학교교육 지원하여 희망 UP!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학교의 운동장 활용도가 낮아지고 시설관리적 미배치로 인한 관리 부실로 이어져 교육환경이 저해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였다.

먼저, 학생 수 50명 이하 소규모학교 16교를 대상으로 ‘소담운동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학생 수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넓은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하여 학생 수와 면적을 고려한 적정 규모(가로 18~25m, 세로 18~25m)의 옥외 체육공간(소담운동장)을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장을 제공한 사례이다. 마사토 또는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바닥재를 깔고 골대와 배수로, 웬스를 시공함으로써 운동장 유유 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관리 부담을 줄이고 체육관 신축 대비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운동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운동장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였다. 고가의 학교운동장 관리기(그라운드클리어)를 교육지원청에서 구매 후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12교에 대해서는 연 2회 운동장 클리닉 작업 실시, 시설관리직 배치교 20교에는 장비를 대여한 사업이다. 관리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표본학교의 지정하여 시범 운영 후 실시하는 등 쾌적한 학교운동장 유지·관리로 민원 해소와 학교 이미지 쇄신의 효과가 있었으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영천교육, 더 낮은 자세로 희망을 찾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낯설고 두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이제 우리에게게는 무엇보다 함께, 슬기롭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역량이 생겨나고 있음을 깨달은 한 해였다.

양재영 교육장은 ‘섬김과 겸손을 핵심 경영 마인드로 하여, 학생에게는 즐거운 배움과 새로운 희망을 주고, 교원에게는 가르치는 보람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교육복지 실현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지역민과 교육가족의 신뢰를 굳건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아직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앞에 있지만, 위드코로나를 넘어 안전하고 행복한 포스트코로나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이 기사는 영천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특별기고



김유미 소설가

김유미의 소설같은 大韓民國(60)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인민민주주의가 도래할 대한민국

장편소설 '화려한 이별' 작가 김유미(문학박사) 정의실천연대 이사장이 작금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질타하는 특별기고「김유미의 소설

같은 大韓民國 60번째 글을 발표했다. 59번째 연재 후 약 한달여 만이다. 이번 호에서 김 작가는 오는 3.9대선의 결과를 미리 그렸다. 그가 이재명이 제20대 대통령이 될것을 예측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현 야당의 현실 처세로는 여당의 부정선거 계책을 막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은 오는 3.9대선에 대한 김 작가의 절망적 시나리오다. 본지는 김 작가의 이같은 시나리오가 틀리길 희망한다. [편집자

◆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인민민주주의가 도래할 대한민국

윤석열과 이재명이 박빙이라고 언론을 동원해서 선동을 시작했다. 이제 곧 여론조사를 인용 이재명이 앞섰다고 할 것이다. 때맞춰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방역 수위를 높이고 1월말이면 방역5단계로 코로나 비상사국을 선포하고 3.9대선을 비대면투표, 즉 전자투표로 실시한다고 공포를 할 것이다. 나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것은 내

가 저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3.10새벽 이재명이 3% 내외로 당선되었다고 발표하면 대선은 끝이다.

내가 누누이 "3.9대선 정권교체는 없다"는 칼럼을 쓴 것은 이런 부정선거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내 칼럼을 이봉규tv, 공병호tv 등 유튜브에서 인용 보도한 것도 3.9대선에서 일어날 부정선거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힘당과 국힘당 선대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들이 4.15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순간 3.9대선에서 벌여질 부정선거에 대해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다. 작금의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 변화는 내가 예측한 것에 오차없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여론조작과 조작된 수치를 개표에 대입시키고,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전투표를 해도 그 근거가 투표용지라는 것이 남기 때문에 재

검표로 들어날 문제점을 차단하는 방법은 전자투표뿐이다.

4.15부정선거 재검표 과정에서 선관위가 주장한 형상기억종이로 투표용지를 만들었다는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좋고, 재검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자투표가 뒤끝이 없는, 완벽한 조작이 가능하기에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제 나의 예측이 하나 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야당이 국민의힘이고,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이고,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 체제로서는 저들의 음모를 막아낼 수 없다. 그러므로 3.9대선에서의 정권교체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인민민주주의가 도래할 것이다. 무지한 우리들이 스스로 만든 자업자득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다.

3.9대선 이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국민봉기가 일어날까? 아니면 그냥 인민으로 살겠다고 내려놓을까?

기자수첩

장지수 기자



영천시, 밭주기 행정? 공유재산관리법 두고 농지법 적용 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무원(영천시)은 1년 단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재산의 누락이나 취득시효를 철저히

관리해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직무 유기가 된다.

지난달 23일 고경면 삼포리 796번지(2,132㎡) 영천시 소유 농지(畓)를 인근 한 식품기업이 불법 매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2019년 10월 이후 영천시가 공유재산 관리를 방치한 사이 이 회사가 무단 점유해 이익을 취했다(수익).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면 즉각 원상복구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마땅하다. 또 법에 명시된 변상금 부과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99조=누구든지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재산을 수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 절차에 따라 고발도 가능하다.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법을 적용해 재산관리 부서가 법 집행을 해야 함에도 영천시는

앞서 선제적으로 농지법을 적용해 12월16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등 통지문을 발송해 밭주기 논란을 불러왔다. 그것도 사유지가 아닌 공유재산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사유지에 적용하는 행정절차법을 이용해 10일 이상의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뒤늦게 재산관리 부서는 앞서 농지부서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을 명령했다며 이중으로 원상복구명령을 실행할 수 없다는 논리다. 농지부서에 이어 원상복구 또는 고발을 할 경우 앞선 농지부서의 행정절차법 의견제출은 명백한 밭주기가 되기 때문이다. 의도적 부서간 밭주기로 비친다.

여기에 농지부서 역시 형평성 없는 집행은 마찬가지다. 개인이 농지를 불법전용 했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10일 이상의 의견제시를 요청해야 하지만 누구는 당일 적발 당일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누구는 10일 이상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집행으로 말쑥을 빚기도 한다.

특히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20년간 아무런 제한없이 민간인이 무단점유하게 되면 취득시효로 빼앗길 수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영천시는 매년 실태조사를 빠짐없이 실시해 재산의 변동이나 불법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번처럼 실태조사를 누락해 공유재산 방치로 인한 재산 불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된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길 바란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의 장 외에는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이번 고경면 K식품의 공유재산 불법행위에 지난 6일 부시장이 건설과장을 대동해 직접 챙긴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이번 기회에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자수첩

김효정 기자



공산주의 길목에 들어선 나(我) 냄비속 개구리 맛깔나는 언어 뒤에 섬жит한 노림수 있었다. 평화·인권·평등·차별금지·주민자치 국민총행복·민주주의의 뒤에 숨은그림자

지난 10월 8일 『무슬림 위해 자국민 공격하는 인권위와 대구 북구청...누가 주민 지키나!』라는 기사를 썼다. 무슬림사원건축에 반대하는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정당한 피해민원을 행정이 강제한데 따른 억울함과 백신 미접종에 대한 차별적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평등'과 '인권'으로 맛깔나게 포장된 단어들로 무슬림과 자국민을 인격체라는 동일성만 주장해 무슬림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보호는 고사

하고 오히려 자국민을 통제·역차별 하고 있다는게 주민들의 불만이다.

무슬림의 폐해 아닌 폐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다. 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로 비판받기 때문이다. 프랑스에는 '이슬람좌파주의'라는 수식어도 생겨났다. 지난 2월 프랑스 '비달' 장관은 방송매체 세뉴스(C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좌파주의가 사회 전체를 타락시킨다"고 했다.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무슬림의 폐해가 아니다. 좌파 정부가 선점하고 있는 미사여구 정책이나 평화, 인권, 평등, 차별금지법 등 무수히 많은 포장된 단어다. 이들 포장된 단어들에 반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문제는 그 단어를 앞세운 달콤한 정책이다. 국민만 모르고 자신들만 착착 진행하는 행동강령과 다름 아니다.

현재 전국 244개 지자체 중 2030년까지 112곳의 아동친화도시 지정은 목표로 현재 60여 지자체가 지정돼 있다. 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조례를 기본으로 96곳의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두서너곳 이상 중첩돼 있는 도시가 대부분이다. 작금 정부는 국민만 모르는 이같은 계획된 포퓰리즘 조례들을 양산하는 공작이다.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관련 조례와 아동의 놀권리 조례가 176건, 입법예고가 163건. 여성친화관련 조례 258건, 입법예고 170건, 주

민자치회 관련 조례 285건, 입법예고 443건 등으로 우후죽순처럼 양산되고 있다. 국민들만 몰랐다.

최근에는 유사한 '마을교육공동체법'이 발의 되는가하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을 여당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며 발의 경쟁이다. 모두 필요불가결한 법안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알고보면 그 법안이 그 법안이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 내부 용어에는 어디에도 공산주의의 행동강령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이희천 박사는 이 법안을 두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법안"으로 규정지었다. 겉으로는 평온한 법안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공산주의의 길목이라는 것이 이 박사의 단언이다. 이 박사는 "새마을운동이 자발적 참여라면 주민자치기구는 좌파사상을 동네에 심어놓는 사회주의 입문절차"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자치기본법 공산주의의 길목』이라는 책을 저술해 좌파 정부 비판에 나섰다.

지난 10월 출범한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도 이희천 교수의 비판대상 연장 선상이다. 이들 대행진은 전남 해남에서부터 전북을 거쳐 지난 23일에는 영천, 24일에는 안동에까지 거리행진과 강의로 점차 북상

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3대 강령 5대 전략을 강조한다. 이 중 마지막 다섯번째 전략이 「농촌주민자치의 실현」 목표다. 이희천 교수의 서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주의의 길목』과도 무관치 않다. 달콤하게 포장된 언어 뒤에는 사회주의의 길목의 소름끼치는 마술이 뻗어 있다.

하지만 더 무서울만큼 소름끼치는 일들은 침묵하는 언론이다. 정부에 반하는 보도라도 나면 가짜뉴스로 몰아 붙이고, 정부에 반하면 적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으로 우리는 독재야만 독재 세상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흑알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깨어나길 바라는 나의 작은 소망과 할 말은 하는 언론들이 재생산되길 바라는 희망에서 이 글을 쓴다.

좌파 정부가 반복하고 섭렵하는 조례와 법안들에 국민총행복, 평화, 마을공동체, 인권, 평등, 차별금지법 등 반대할 수 없는 달콤한 단어를 갖다붙일 때는 몰랐다. 그 속 내용이 지옥같고 우리 아이들까지 망치고 있다는 것도.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세내화 되어 가던 중 갈딱이는 숨 남아 있는 이제서야 깨닫는다. 국민을 통제하고 서로 감시하기 위한 장치이며 제도인 것을.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조차 갖지 못하도록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과정임을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냄비속 개구리처럼.

동정

[이만희 의원]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서겠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동시에 윤 후보를 밀착 수행하고 있다. 의원은 윤 대통령후보 수행단장으로 윤 후보와 함께 7일 서울112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홍익자을 방범대와 동행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이 의원은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윤 후보와 함께 경찰에 약자의 눈물을 감싸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약자 보호의 길을 위해 몸을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 경북을 세계최고 의사 양성소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국가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산업 선도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정책세미나'에 참석하고 "새로운 미래 변화의 속도에 맞춰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국가적 미래新산업 육성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경북을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전문가 양성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 자양면 신방리 40년 숙원 해결



최기문 영천시장은 9일 오후 자양면 신방리 52번지 신방리 주차장에서 열리는 자양면 신방지구 지방상수도 통수식에 참석한다. 앞서 자양면에는 지난해 12월 31일 용화리 경노당 전정에서 자양면 지방상수도 통수식을 가져 지역 주민 40년 숙원을 이뤘다. 지난해 최기문 시장은 "2023년까지 자양면 전 지역과 화북면 정각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돼 주민들이 식수 걱정 없이 맑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자원봉사자들 격려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7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1 영천시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2만여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있어 영천은 든든하다"며 "묵묵히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이면 마다 앓고 헌신해 온 수상자들 여러분이 희망이다"며 인사했다.

김경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영천시장 출마 선언

국민의힘 첫 공식 출마 선언

내년 6월 1일 치뤄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지방선거는 3개월전에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영천에서는 김경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사진>이 가장 먼저 국민의힘 영천시장 출마에 변칙 손을 들었다.

김 전 청장은 8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발송하고 "고향 영천을 살기 좋고 시민이 자긍심을 가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내년 6월 영천시장에 국민의 힘 후보로 출마코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첫 공식 출마 선언이다.

김경원 전 청장은 출마선언 프로필에서 "영천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같은 정당의 국회의원과의 협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



해 바꾸어야 한다"면서 생색내기 식이나 보여주지 식의 소극적 시정 운영 방식으로는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지역에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문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최기문 현 시장을 의식한 듯 직격했다.

출마의 변에서 김 전 청장은 영천의 미래를 위한 일부 대안도 제시했다. 가장 핵심은 역시 인구를 쪼갬고, 지역 농업은 생산 위주가 아닌 유통·가공·바이오통을 이용한 라이브 커머스 등으로 확대해 치유농산업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다.

30년 공직에서 예산부처와 재무부, 국세

청 등의 경험으로 재정분야 정책통일을 강조한 김 전 청장은 구체적인 공약은 선거과정에서 밝히겠다면서도 중앙과 지역에서 쌓은 행정능력과 정치력,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인맥을 바탕으로 영천에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재정책보를 위한 중앙 인맥을 특히 강조했다.

김경원 전 청장은 1953년생으로 금호초등, 경대사대부고, 영남대 경영학, 미국위스콘신 대학 공공정책학, 서울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07년 보수정당(지금의 국민의힘)에 가입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후보 선대위(상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대구지방국세청장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영남대 겸임교수, 국민연금공단 감사 등을 거쳤다. 저서로는 신 실용주의로 세계 일류국가 만들기(김경원 외 6인 공저), 김경원의 영천 자전거여행이 있다.

세계주철 최익구 대표, 제25대 중기융합 대경 영천교류회장 취임

영천교류회, 영천시장학회 300만원 신임 최익구 회장도 200만원 기탁

세계주철 최익구 대표가 중소기업융합 제25대 대구경북연합회 영천교류회장에 취임했다.

(사)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 영천교류회(회장 최익구)는 지난 3일 영천 스타컨벤션웨딩에서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 영천교류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제24대 정군섭 회장이 이임하고 제25대

회장에 최익구 세계주철 대표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교류회는 서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회원 상호 간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교류 활동으로 경영·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 경제발전과 사회에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1992년 창립해 현재 46개 회원을 두고 있다.

교류회는 이날 영천시장학회에 300만원을 또 신임 최익구 회장도 별도 200만원의 장학금을 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정광원 영천시 바르게살기협회 명예회장, 1천만원 기부

'희망2022 나눔캠페인'에 동참

정광원 영천시 바르게살기협회 직전회장(현 명예회장)이 지난 2일 '희망2022 나눔캠페인'에 1천만원을 기부해 '사랑의온도탑' 온도에 상승에 힘을 보탰다.

이날 기탁식에서는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부회장 명의로 기탁한 바르게살기협회(영천) 정 명예회장은 지역 (주)강산과 승원친환경기술(주) 회장으로 올해 약 2천만원 상당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명예회장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또한 환경 보호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며,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과 사회 공헌 활동에 환경실천연합회도 앞장서고 싶다"며 기탁 소감을 피력했다.

여기에 최기문 영천시장은 "추운 연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정광원 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영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영천시의 소중한 학생들을 지키고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백신접종 백신패스 반대

일시 : 12월 10일 금 오전 11시~12시
장소 : 영천시 교육지원청 앞 (쪽지나 개인 채팅으로 신청 가능)

- 코로나로 인해 인원제한이 있으니 미리 신청 바랍니다.
- KF94 마스크 필수 착용바랍니다.
- 철저한 방역을 위해 2미터 거리두기 준수합니다.
- 인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침묵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뜻을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동참바랍니다

세왕금속공업(주), 동부동에 성금 421만원 전달

영천시 망정동 소재 세왕금속공업(주) 이철희 대표 외 임직원 일동이 지난 6일 동부동 사무소를 찾아 경북공동모금회 '희망2022 나눔캠페인'에 사랑의 성금 421만원을 기탁했다.

세왕금속은 매년 11월에는 2,000여 장식의 연탄나눔 봉사와 지역 이웃 어르신들께 정기적인 점심봉사, 여름이면 농촌 일손돕기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 매년 이맘때면 꼭 동부동을 통해 이같은 희망 성금을 조용히 전달한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작은 금액이지만 따뜻한 나눔에 잘 써달라"며 당부했다.

"부모 없이도 잘 해요" 유치원 꽃피 아이들 학예발표

유치원 원아들이 학부모없이 스스로 자신들의 끼와 기량을 선보이는 꽃피 아이들 학예발표가 지난 3일 화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있었다.

화산초등학교(교장 정호엽)는 지난 3일 코로나19로 아이들에게 모두 마스크를 착용시켜 학부모 초청없이 공연을 펼쳤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학예발표는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자신들이 열심히 연습했던 악기(칼림바, 리코더, 우쿨렐레 등) 합주와 연극, 댄스 등 자신감있게 기량을 선보여 관람하는 학생들의 응원박수를 받았다.

이번 학예회는 학생들이 자칫 코로나19로 심리적 위축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한 해를 보내면서 꿈과 끼를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학생들의 무대 발표 모습의 학예 동영상은 USB로 제작해 각 학부모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 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면, 남편의 퇴직연금 재산권 분할 부부간 합의·법원 결정은 그에 따른다 혼인 기간의 퇴직연금 절반 받을 수 있어

문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받게 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로는 퇴직급여, 비공무상 장애급여, 퇴직유족급여, 퇴직수당이 있는데, 그중 퇴직급여는 다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으로 구분된다.

이혼한 부부에게 인정되는 분할연금청구권 문제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여기서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과 이에 대한 분할연금을 대해서만 살펴본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65세가 된 때부터, 계급정년으로 퇴직시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된 때부터 사망시까지 탈 수 있다. 물론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지급 시점 전에 퇴직한 경우 미달연수에 따라 감액되는 조건으로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과 조기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이혼한 부부의 일방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즉 타방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하였고, 타방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권자이며, 분할청구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타방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지급받는다라는 것은 연금분할에 관한 부부간의 합의나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만약 부부간의 합의나 법원의 분할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된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이 퇴직연금수급권자인 경우 분할연금청구의 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때로부터(예, 65세) 3년 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탈 수 있는 때로부터(예, 66세) 사망시까지 남편이 받는 공무원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그 절반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세무

윤 영 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가산세에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아

가산금=국세 납부 지체에 발생하는 부과금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세가 발생한다. 오늘은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법에서는 세금부과 징수와 같은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조세의 공평 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의 수단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벌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있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증가가산금이라고 한다. 즉, 가산금은 이미 확정된 세액을 납부지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자연이자의 성격을 가진 부대 세금인 것이다.

따라서 가산금은 자진납세나 고지납세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부과되는 것으로 미납부된 세금의 일부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가산금은 납부에 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감면규정이 없어 본세가 취소되거나 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금도 취소되거나 정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였거나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되도록 빨리 신고하여야 감면비율을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사설]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盧溪) 등질 이유 있었나?

노계(盧溪) 박인로(朴仁老)는 최무선(崔茂宣),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영천 3선현으로 불린다. 정몽주는 고려말 충신으로 성리학의 대가다. 최무선 역시 고려말 장수로 한국 역사상 최초 화약을 발명한 과학자다. 특히 문무를 겸비한 박인로는 정철을 계승해 조선 중기 가사문학에 이바지한 업적을 남긴 문학의 대가다. 모두 영천 출생이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영천의 아버지라 부른다.

자고로 아버지를 흠대하거나 내치면 우리는 패륜이라 낙인 찍는다. 이같은 훌륭한 아버지를 선양해도 부족할 판에 유독 개인적 감정으로 패륜을 자처한 자가 있다면 그를 벌해야 마땅하다.

오는 10일 노계(盧溪) 박인로(朴仁老) 기념사업회(이사장 김일홍)가 제4회 『노계문학』 전국 백일장 대회 시상식을 갖는다. 명실공히 전국대회로 자리잡았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 비해 3.5배가 넘는 680명이 응모해 유례없는 흥행을 기록해 대성공을 거뒀다. 기념사업회의 노력의 결과다.

그런데 지역에서 주최한 전국 대회에 지역 수장인 최기문 영천시장의 상이 없다. 주최측은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공(功)·사(私) 구분을 못하고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 노계를 흠대하고 의도적으로 시장상(賞)을 주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반면 영천시는 오히려 "노계축이 일방적으로 시장상(賞)을 뺏다"며 '갑론을박'이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안다. 이번 시장상(賞)이 제외된 것은 영천시가 대회 초청장에 「영천시·최기문·영천시장」등 영천시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 사용을 불허한데서 비롯됐다. 주최측의 영천시장상(賞)요청 공문에 영천시가 시장문제는 속 빼고 초청장만 통제하는 과정에서 참았던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이번 대회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시상식이 끝난 제2회 노계문학 전국시낭송대회에도 시장상(賞)이 제외된 것을 보면 노계축의 손을 들어줘야 합리적이다.

‘최기문’ 이름 석자는 몰라도

영천시는 이래저 측에 전가하지만 수 없다며 그동안 장과의 개인적 감

‘영천시’와 관련된 일체 명의 사용 금지는 너무 지나쳤다.

영천시는 이래저 측에 전가하지만 수 없다며 그동안 장과의 개인적 감

래 그 책임을 주최측은 더는 참을 참아왔던 최기문 시정에 대한 갈등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렇다면 최 시장이 노계에 무슨 개인적 감정이 있었을까? 노계축에서 합리적 그 근거를 찾아봤다.

사건은 지난 지방선거다. 박진규 전 시장이 사실상 최 시장 반대측을 도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그런데 최 시장이 이를 안 좋게 여기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주최측은 확신한다. 다음 사항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불씨가 돼 취임 후 지금까지 노계에 대한 예산 확대와 밀어내기가 노골화됐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핑계없는 무담이 없었지만 이유야 어떻든 그동안 최 시장은 제4회가 될때까지 노계 시상식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매년 지원해 오던 유적지 답사 지원차량도 2021년에는 배제했다. 2017년 노계축이 유치해온 노계문학공원 국비예산 30억원도 2019년 11월 28일자로 예산이 반납됐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지난 7월1일 영천시 승격 40주년 기념식 때에도 박진규 시장을 초청해 놓고 뒷줄에 앉힌 것은 고사하고 전직 민선시장 모두가 영어의 몸이 된것을 의식한 듯 "다시는 이같은 오욕의 역사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 며 최 시장이 직접 발언해 박진규 전 시장 면전에서 모욕적 언사를 뱉었다. 이 때문에 한때 박씨 문중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는 등 사태 수습에 영천시가 곤혹을 치렀다.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계축에서는 사무국장이 최기문 영천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2020년 1월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한 차례도 면담이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12월 8일에서야 최 시장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노계 사무국은 이미 과국 목전에 다달았기 때문이다.

영천시는 손사래를 치겠지만 최 시장 취임 후 이같은 노계 밀어내기 의혹은 차고 넘친다. 영천시가 공(功)·사(私) 구분을 못하고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 노계를 흠대하고 의도적으로 시장상(賞)을 주지 못하게 했다는 노계축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지 않다.

이번 시장상(賞) 배제 사태를 두고 노계축 김일홍 이사장은 "시장의 눈을 가리나 아니면 시장이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또 노계 문중에서도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움직임이다. '영천시' 명칭이 최기문 시장의 전유물이 아닐진데 '최기문' 이름 석자는 몰라도 공익사회단체에 '영천시'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 사용을 불허한다는 시의 경고는 지나침이 없지 않다.

‘할 말을 하는 영천신문’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구독료

정론(正論)·정도(正道)의 한길을 곳곳이 걸어가겠습니다

▶ 구독료: 월 5,000원 / 년 6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 구독제보: TEL 332-2400 FAX 335-6600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인쇄인 (주)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동)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동고등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202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스마트 교실·그린학교 배움과 쉼이 있는 혁신공간

신입생 입학 상담실 운영

장소 : 본관 2층 휴게실
기간 : 현재 ~ 2021.12.14(화)
문의전화:054) 334-4536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1. 모집인원 남학생 132명 (6학급)
- 2. 지원자격 가. 경상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자
- 3. 교부 및 접수기간 2021. 12. 9(목) ~ 12.14(화)
- 4.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21. 12. 23(목) 12:00
나. 장소 : 고입전형포털, 본교 홈페이지 및
나이스 온라인 고입전형 시스템에서 확인
(<http://school.gyo6.net/youngdonghs>)
- 5. 합격자 등록 2021. 12. 23(목) ~ 28(화)(고입전형포털에서 등록)

대입 성공의 길, 영동고등학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선택·집중·자율 변화에 앞장서다.
(미래를 활짝 여는 창의적 인재육성)

국민 취미 생활 1위 낚시!
민물낚시의 성지 영천!
전국 최다 저수지를 보유한 영천!

낚시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피싱엠 낚시가 앞장서겠습니다.

피싱엠 낚시하는 사람들!!
FISHING MEMBERS
www.fishingm.co.kr

영천 피싱엠 낚시
영천시 영화로 98
☎ 054) 335-3303

영천 **국화원**
전문장례식장

고급수의 관
도우미 상복
장의버스
입관용품

99만원

(054) **331-4444**
(영천영대병원 옆)

영락원 장례식장

관수익, 도우미, 상복
장의버스, 입관용품

99만원

24시간 상담가능 **336-4444**